토종닭이라고 샀는데 얼룩닭…사료 잘못 먹인 탓이라고?

강진 농장주 구입한 병아리 3500마리 중 90% 흰 털 섞여
판로 막히고 살처분값만 수천만원…처치 곤란에 '발 동동'
부화장 대표 사기 혐의로 고소…부화장 측 "사육 환경 탓"

토종닭인 줄 알고 병아리 3000여마리를 구입했는데 수 개월동안 키우고 보니 토종닭과 딴판으로 생긴 닭으로 자라 한 마리도 못 팔게 됐다면, '애물단지'가 돼 버린 닭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

강진군 칠량면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권용구(58)씨는 지난달 17일 충남 천안시의 한 병아리 부화장 대표를 강진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부화장 대표가 권씨에게 토종닭 병아리를 판매할 때 종자를 알 수 없는 병아리를 90% 이상 섞어 팔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240만원을 들여 토종닭(한협 3호) 병아리 3500마리를 구입했는데, 3개월여 키우고 보니 토종닭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자라났다. 한협 3호 토종닭이라면 갈색 깃털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권씨가 키운 닭의 90%는 얼룩소처럼 갈색 깃털과 하얀 깃털이 바둑판처럼 뒤섞인 모습〈사진〉이었다.

권씨는 병아리를 구입했던 천안시의 한 부화장에 따졌으나, 부화장 측은 오히려 권씨가 사료를 잘못 먹였거나 사육환경을 잘못 다뤄 흰 털이 난 것이므로 권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부화장 관계자는 "우리 또한 알을 공급업체로부터 받아와 부화시킨 것인데, 이 공급업체를 통해 토종닭 원종을 제대로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농가 측이 앞서 제공받은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추운 환경에 방치했으며, 사료를 한참 적게 주고 키워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아리를 키운 지 다섯 달이나 지나서 갑자기 문제삼고 고소장을 들이민 것은, 이미 우리 병아리는 다 팔아버리고 다른 닭을 가져와서 문제삼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사료를 잘못 먹여 흰 털이 생겼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애초부터 종자를 잘못 가져온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서국현 전남대학교 수의대 교수는 "권씨의 닭은 사진상으로 봤을 땐 백색 계통의 다른 닭과 교잡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료 등 외부 요인으로 종자가 달라질 순 없으며, 이는 마치 한국사람이 미국에 가서 밥을 먹는다고 미국사람이 된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문제는 권씨의 닭 3500마리가 하루아침에 '골칫덩이'가 돼 버린 것이다.

권씨의 닭은 지난 3~4월께 출하할 예정이었으나, 판매처에서 '토종닭 종자를 확인할 수 없다'며 잇따라 구매를 거부했다. 현재 닭은 7개월차까지 자랐으나 여전히 판로가 꽉 막힌 상황이다. 이미 사료값으로만 4000여만원 상당을 쓴 터라 계속 키우기에도 벅차다는 것이 권씨 설명이다.

그렇다고 '살처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강진군 관계자에 따르면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뚜렷한 전염병이나 질병을 갖고 있을 때만 할 수 있으며, 설령 업체를 물색해 살처분을 하더라도 수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농장주가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 또 닭에게 사료를 주지 않고 폐사하도록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산지에 닭을 방사했다가는 동물보호 단체로부터 동물 학대로 고발당할 위기라고 권씨는 전했다.

전남도과 강진군 등 지방자치단체는 "사정은 딱하나, 달리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개인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움 주긴 어렵다"며 "부화장과 빠르게 협의를 보고, 군청 등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촌닭 등을 거래하는 판매처를 빨리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진군 가축방역팀 또한 "사정을 듣고 군청 차원에서 닭을 구입하는 방안도 내부 논의했으나, 농가에서 관련 고소 건이 진행중인데다 지원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밖에 별도의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다른 도움을 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 남구 '착한가게' 6곳 추가
공공요금·청소비 등 지원

광주시 남구가 올해 '착한가게'6곳을 추가 선정해 본격 지원에 나선다.

남구는 고물가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 가게에 공공요금 및 청소비 등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남구에 있는 착한가게는 총 41곳으로, 외식업 25곳과 이·미용업 10곳, 세탁업 2곳, 사진관 2곳, 목욕업 2곳 등이다.

자장면 한그릇에 3000원부터 냉면 5000원, 떡갈비 백반 7000원까지 메뉴와 가격이 다양하다. 또 헤어커트 비용을 6000원 받거나 4000원에 온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남구는 이들에 대해 착한가게 표창과 함께 1년간 소독·방역(최대 3회), 에어컨 청소(최대 2회)를 지원하고 20ℓ와 30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각 160매씩 제공한다. 또 1년에 최대 35만원의 상하수도 요금도 제공해 경영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불법촬영 꼼짝마 광주시 북구청과 북부경찰서 직원들이 효령노인타운 실버안심순찰대원과 함께 7일 오전 광주시 북구 본촌생태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기기 단속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남광주해뜨는시장 '온라인 뜨는 시장'
중기부 '디지털 전통시장' 선정…온라인 판로 강화

광주시 동구 학동 '남광주해뜨는시장'이 온라인 판로를 강화해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거듭난다.

광주시 동구는 남광주해뜨는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2023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디지털 전통시장'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남광주해뜨는시장은 이 사업으로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위한 협동조합 수립, 사업모델 수립을 위한 교육, 온라인 장보기와 전국 배송, 전통시장 온라인 입점, 배송 인프라와 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구는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해 남광주해뜨는시장의 온라인 진출·경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 판로 및 고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재호 남광주해뜨는시장 상인회장은 "시장 상인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상권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동구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이제는 전통시장도 온라인 진출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며 "앞으로 남광주해뜨는시장 상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 구입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교사·자녀 같은 고교에… 전남교육청 전학 권고
학교 측 "교사 전보 불가능…논의 후 결정할 것"

부모가 교사인 고등학교에 자녀가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돼 전남도교육청이 전학을 권고했다.

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A사립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의 자녀가 2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돼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걸 배제하는 '상피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전학 조치를 요청했다.

'상피제'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으며 교사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입학할 수 없으며 공립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된다.

사립학교는 교사를 법인이 운영하는 타 학교로 전보하거나 학생을 전학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3월 A고교의 교장과 교사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하고 전학을 권고했다. 교장의 자녀는 다른 학교로 전학했지만 교사의 자녀는 현재까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상피제가 사립학교의 경우 권고사항이어서 강제 전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교사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파악하고 전학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등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해당학교의 상황을 확인한 뒤 다시 한번 전학 또는 교사 전보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고교 관계자는 "해당지역은 일반고교가 2곳이며 교사의 경우 제2외국어 전공이어서 같은 법인의 중학교로 전보도 불가한 상황이다"며 "교사와 논의한 뒤 전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 북구 우산동주민센터 신청사 12일부터 업무 시작
자치도서관·돌봄센터 등 입주

광주시 북구 우산동 행정복지센터가 4년간의 더부살이를 마치고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는다.

북구는 우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북구 우산동 269번지)로 이전해 오는 1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산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청사가 우산구역 재개발 부지에 포함돼 있어 지난 2019년 4월부터 말바우시장 인근 건물을 임차해 임시 청사로 사용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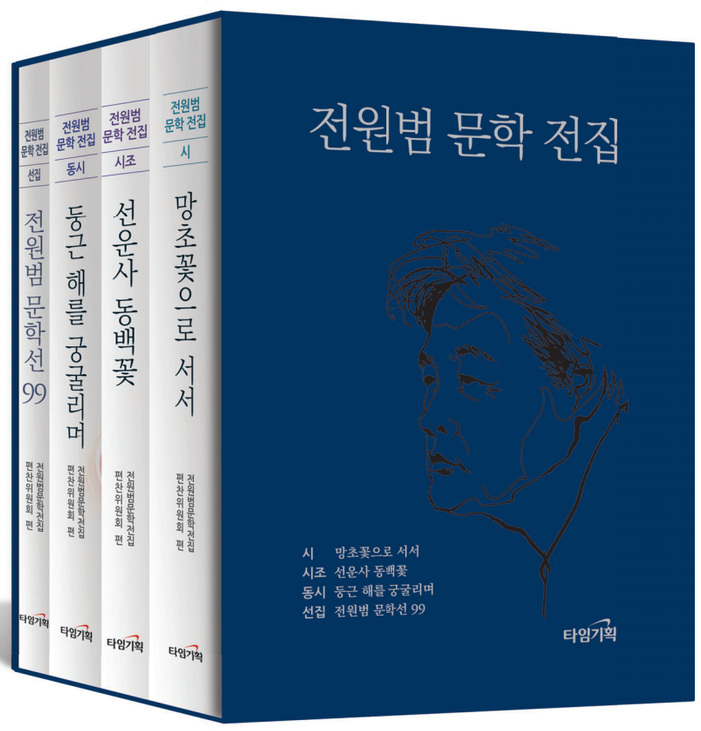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연면적 2085㎡, 지하 1층 ~ 지상 5층 규모)는 북구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해 우산공영주차장 인근에 최근 완공됐다.

1층에는 민원실, 자치도서관, 복지상담실 등이 들어서고 2층에 다목적실과 주민자치실이, 3층에 동대본부 등이 자리하며 4층과 5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이 오는 7월 중 입주할 예정이다.

한편 북구는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소식을 다함께돌봄센터와 생활문화센터 등이 입주하는 7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한『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둥근해를 궁굴리며』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전원범 문학선 99』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돼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창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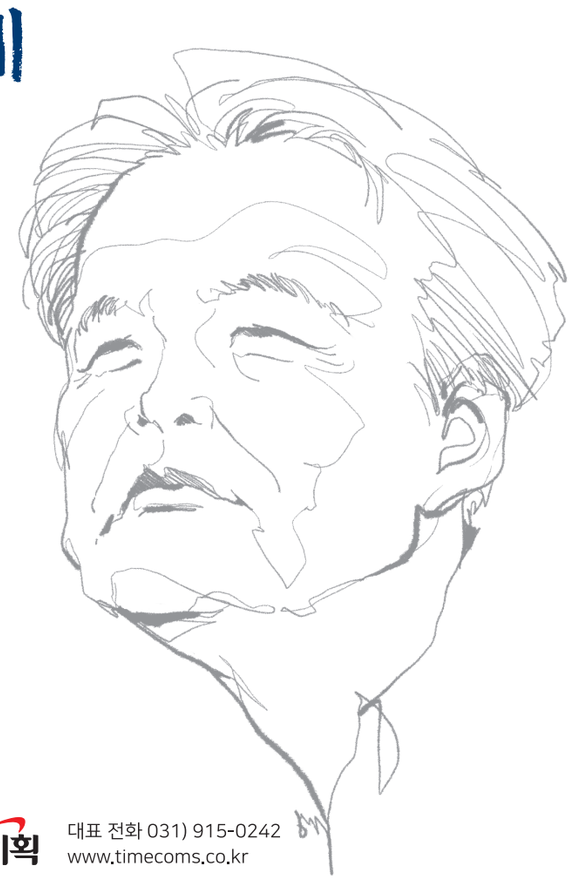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둥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